



박희권 상무
(주)하림

육계의 참살이는 현장 경영과 미세관리의 실천입니다

장마가 시작됐다. 우리는 이 무덥고 긴 장마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다. 창고에 두었던 선풍기와 에어컨을 손질하고, 시원한 산과 바다를 찾는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특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 가족들과 어릴 적 추억이 깃든 동네 계곡에서 닭도리탕과 삼계탕을 안주 삼아 소주와 추억을 나눌 한여름 밤의 1박 2일 여정은 마음을 아주 들뜨게 하기도 한다. 특히 닭고기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꼭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들은 4월부터 여름을 준비해 왔다. 우리들의 건강 식품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삼계탕과 닭고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원하는 만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말이다.

육계의 참살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겠다.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환경에서 보온덮개 계사는 외부 환경과 100% 차단된 무창계사로 개축되어야 한다. 시험결과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닭이 훨씬 맛있다고 증명되지 않았는가!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돼 무창계사 신축 사업은 앞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5년후에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닭에게도 사회적인 서열이 있다.

그래서 병아리 입추시에는 반드시 평당 사육수수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집단으로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서열이 낮은 닭들은 항상 힘에서 밀려 열악한 환경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물과 사료 먹는 순서도 정해져 있고, 잠자리도 쾌적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므로 평당 적정 사육수수를 기르고, 급이기와 급수기를 충분히 공급해서 모





든 닭들이 균등하게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수송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켜줘야 한다.

사람도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 버스를 기다리고, 이동 중에 흔들리고, 불편한 자리, 낯선 장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 닭도 마찬가지이다. 계사에서 차량에 상차하기 위해서 한곳으로 모는 과정, 상차 진행 중에 기다리는 시간과 차량에서 느끼는 속도감 등은 닭에게 많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수송후 계류기간동안에 느끼는 편안감은 닭고기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4시간동안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바람의 흐름 등을 통해 그간 받아 왔던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하고 난 이후에 가공공장에 들어가게 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최근 경영의 화두로 현장 경영과 미세관리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있다.

우리 사육농가의 경우를 놓고 보면, 과거 열악한 사육시설이었을 때에는 계사내에서 살다시피

했다. 연탄불을 갈아주고, 사료포대로 사료를 직접 부어주는 과정을 하루종일 하다보면, 즉각각 닭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줄 수 있었다. 이제는 현대화된 시설 덕택에 직접 사료를 나를 필요는 없어졌지만, 가능하면 자주 계사내에 들어가는 현장 경영을 해야 한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지만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관리. 즉 닭을 운반차량에 상차를 완료했다면 지체없이 가공공장으로 출발해 차량에 있는 시간을 줄여주고, 부득이 쉬어야 한다면 그늘에 정차하거나, 송풍기 역할을 하는 기기를 설치해서 닭에게 더위를 식혀주는 작은 정성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미세관리라 생각된다.

올 여름이 다른 해보다 무덥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건강에 대해 미세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강에 좋은 삼계탕을 계획적으로 섭취하며, 적당한 걷기 운동을 실천하여 올 여름도 건강한 여름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

